



킬러 vs 에이스... KS 3차전 '선발 특명'



LG 손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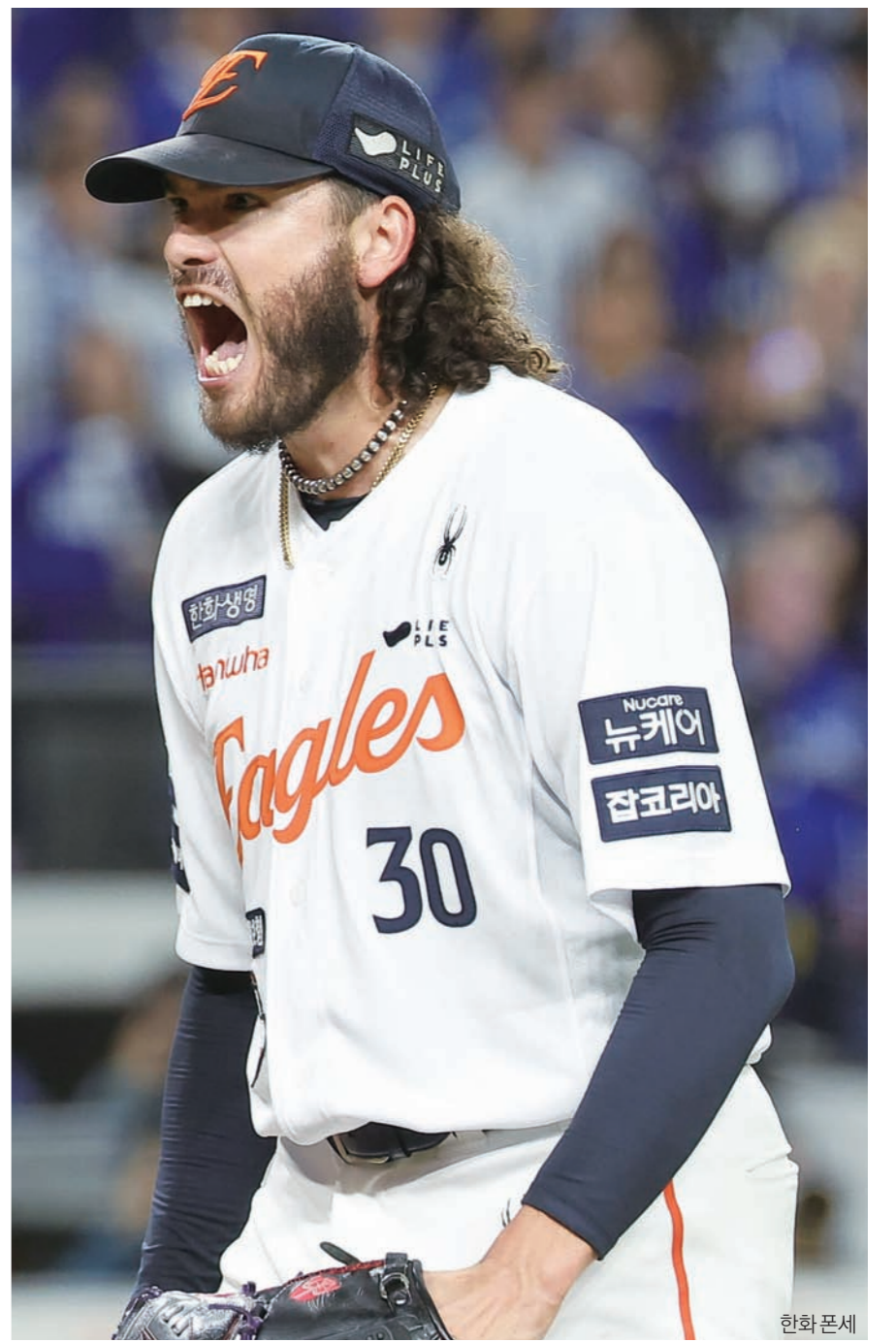
한화에 강세... LG 좌완 손주영
정규리그 11승6패 ERA 3.41 선발
5월엔 7이닝 1실점 독수리 사냥
강타자문헌빈채은성도속수무책

LG 트윈스의 왼손 투수 손주영과 한화 이글스의 오른손 에이스 코디 폰세가 29일 대전 한화생명 불꽃에서 열리는 202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3차전에서 선발 투수로 대결한다.
KS 2승을 거둔 LG와 2연패의 한화는 28일 두 선수를 KS 3차전 선발로 각각 예고했다.
정규시즌 최고의 성적을 낸 폰세는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한화를 구원하기 위해 마운드에 다시 오른다.
폰세는 18일 삼성 라이온즈와 플레이오프(PO) 1차전에서 6이닝 7피안타 6실점(5자책점)으로 고전했으나 24일 삼성과 PO 5차전에서 5이닝을 5피안타 1실점(비자책점)으로 막아내며 팀의 KS 진출을 이끌었다.
당시 82개의 공을 던진 폰세는 4일 휴식 후 다시 출격한다.
폰세는 올해 17승 1패, 평균자책점 1.89, 탈삼진 252개를 기록하며 다승과 평균자책점, 탈삼진, 승률 4관왕에 오른 유력한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후보다.
다만 LG를 상대로는 2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3.46을 기록했다. 상대한 9개 팀 중 평균자책점이 가장 높다. 아울러

한국시리즈 견인 주역 한화폰세
다승·ERA·승률·탈삼진 4관왕
LG엔 약세... 승리 못한 유일한 팀
김현수·박해민 중심타선막아내야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팀이다.
김현수(타율 0.500), 박해민(0.444), 오스틴 딘(0.333), 박동원(0.333) 등 LG 중심 타자들에게 다소 고전했다.
그러나 물러설 곳은 없다. 폰세마저 무너지면 한화는 3연패를 당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다. 역대 KS에서 1~3차전을 모두 내준 뒤 시리즈를 뒤집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LG는 손주영 카드를 내세운다.
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가 옆구리 담증세로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탓에 손주영이 3차전에 출격한다.
손주영은 믿음직스럽다. 그는 올해 정규시즌에서 11승 6패, 평균자책점 3.41로 활약했고 한화를 상대로 특히 잘 던졌다. 2경기 선발 등판해 1승, 평균자책점 1.38을 기록했다.
5월9일 한화전에서 7이닝을 1실점으로 틀어막았고, 8월10일 한화전에서 6이닝 2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했다. 손주영은 지난해에도 한화와 정규시즌 2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69를 기록하며 '독수리 사냥꾼'으로 입지를 굳혔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한화 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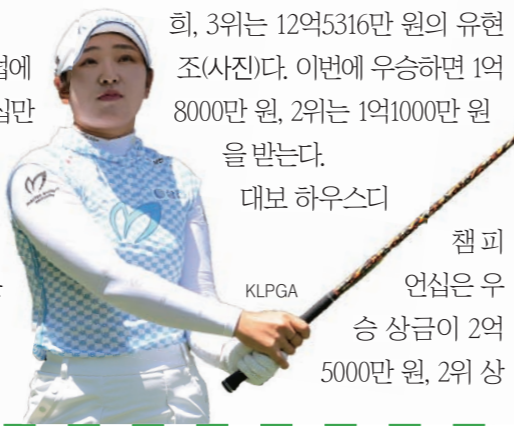
2개 대회 남은 KLPGA... 개인타이틀 '막판 경쟁'

상금왕 홍정민·노승희·유현조 각축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2025시즌 2개 대회만을 남긴 가운데 개인 타이틀 등 막판 경쟁을 이어간다.
30일부터 나흘간 제주도 제주시 엘리트시안 제주(파2·6816야드)에서 열리는 에쓰오일 챔피언십(총 상금 10억 원)은 이번 시즌 KLPGA 투어의 30번째 대회다. 이후 이번 시즌 대회는 다음 달 7~9일

경기도 과주 서원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만 남는다.
각종 개인 타이틀은 물론 시즌 전을 피하기 위한 상금랭킹 60위 이내 사수 경쟁이 열마 남지 않은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상금왕 경쟁부터 뜨겁다.

홍정민이 13억1787만 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는 13억405만 원의 노승희, 3위는 12억5316만 원의 유현조(사진)다. 이번엔 우승하면 1억 8000만 원, 2위는 1억1000만 원을 받는다.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은 우승 상금이 2억 5000만 원, 2위 상



KLPGA

금은 9600만 원이 주어진다. 대상 포인트의 경우 이번 시즌 27개 대회에 출전, 1승을 포함해 18차례나 톱10에 오른 유현조가 658점으로 선두에 오른 가운데 홍정민(524점)과 방신실(510점)이 뒤를 쫓는다. 유현조가 유리한 하나 이번 대회 우승자가 70점, 준우승자가 35점을 가져가며 대보 하우스디 대회는 우승자에게 메이저 대회 수준 100점을 줘서 예단하기 어렵다.

젊은 선수 최초... 손흥민 프리킥 '올해의 골'

기막힌 프리킥을 장식했던 손흥민(LAFC·사진)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데뷔 골이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
MLS 사무국은 28일(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LAFC 데뷔골이 이 역사책에 영원히 남게 됐다"며 "한국의 슈퍼스타가 8월24일(매치데이 30) FC달러스전에서 터트린 놀라운 프리킥이 '2025 AT&T MLS 올해의 골'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

로 LAFC에 합류한 뒤 세 번째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다"면서 "8월 초 MLS 데뷔 이후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8월24일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의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달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6분 페널티아크 정면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키커로 나서 정확하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자신의 MLS 데뷔골을 꽂았다. MLS 데뷔 3경기 만에 마수결이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은 매치데이 30의 '골 오브 더 매치데이' 주인공이 됐다.



AFP·연합뉴스

토종 참돔 전문 브랜드
웃이랑 대표 김종규입니다.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만들겠습니다.
믿고 드셔보세요.

웃이랑
웃이랑 대표이사 김종규

살살한 찬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보양식 흑염소!
언제 어디서나 드시기 딱 좋은 <웃이랑 흑염소>를 소개합니다.

웃이랑 흑염소는 식육추출가공식품 입니다!

일반 저가형 추출가공식품과 다릅니다.

흑염소진액 구매시 반드시! 식육추출가공식품인지 확인하세요!

감사 할인 이벤트

6박스 269,000원!

진짜 흑염소 육골이 들어가야 식육추출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만 총 4개를 보유한 기업으로 미생물 발효와 특허받은 발효법으로 이중 삼중으로 안전(安全)을 기업 철칙으로 여기며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돔 전문 브랜드 웃이랑은 <웃이랑 흑염소>를 부담없는 가격에 공급합니다.
1박스 79,800원(80ml x 30포) 구성입니다.

제조원: 농업법인(주)웃가네 /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143
판매원: ㈜웃이랑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 남산빌딩 4F

NAVER **웃이랑** 검색

참돔 전문 브랜드 <웃이랑>

[웃이랑 흑염소] 가격정보
<웃이랑 흑염소> 1박스 159,600원 → **79,800원**
2박스 319,200원 → 128,000원
3박스 478,800원 → 168,000원

주문전화 02-458-0821
무료배송 / 신용카드 구입가능
행사기간 : 2025년 12월 31일 까지

웃이랑 흑염소 출시 10주년 기념
폭탄 할인 이벤트
6박스 ₩594,000 → **₩269,000**